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사회공헌활동

✎ 이형동 기자 | ⓒ 승인 2025.09.20 13:16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펼쳐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임직원들이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지난 16일 초전면에서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을 펼쳤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사의 다솜등지복지재단과 협업·추진하는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불량 주택의 집수리 봉사를 통해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해왔다.

성주지사는 시공업체를 통한 800만원 가량의 공사와 더불어 사업 선정 가구의 기와 강판 교체 및 물받이 공사 보조, 내부 가구 이동 및 생활 쓰레기 처리 등의 봉사했다.

이돈문 지사장은 "우리 삶에 의식주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바뀌
나가기 어렵고, 익숙해지는 것이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웃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힘쓰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과 상생하는 지사와 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hd60lee@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